



연기자 탕준상·김강훈·김환희·남다름(왼쪽부터)이 10대임에도 저마다 드라마 주연 자리를 꿰차 안방극장에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제공 | SBS·MBC·KBS

주연 꺾찬 ‘무서운 10대들’

탕준상·김강훈 ‘라켓소년단’ 주인공
김환희 ‘목표가 생겼다’ 복수 아이콘
남다름, 판타지극 ‘...가두심’ 주역

안방극장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탕준상(18)·김강훈(12)·김환희(19)·남다름(19) 등 10대 연기자들이 그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2030세대 연기자 중심의 드라마 제작 흐름이 최근 10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세대를 조명하는 이야기로 바뀌면서 아역에 머물던 이들이 주연의 자리에 우뚝 올라섰다. 아역 경험으로 다진 탄탄한 연기력과 열정을 앞세워 입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탕준상·김강훈...스포츠 드라마 도전

31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SBS 월화 드라마 ‘라켓소년단’으로 주연 호흡을 맞춘다. 전남 해남의 한 중학교 배드민턴부가 해체 위기를 딛고 전국체전에 도전하는 이야기에서 각각 중3 전학생과 중2 막내 부원 역을 맡는다. ‘어렵다’는 이유로 성인 연기자들도 기피하는 스포츠 소재에 과감히 도전해 5개월여 배드민턴 연습에 매진해왔다.

포부도 남다르다. 25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탕준상은 “품(자세)부터 배우며 실감 나는 배드민턴 경기 장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2009년 데뷔 이후 처음 주연을 맡은 김강훈은 “부담감이 있지만 다른 형·

누나 연기자들을 믿고 따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14일 공개된 넷플릭스 ‘무브 투 헤븐’과 19일 종영한 tvN ‘마우스’에 각각 아스퍼거증후군을 앓는 유품정리사와 사이코패스 소년으로 등장해 호평을 이끌어냈다.

●김환희·남다름...‘정변의 아이콘’

‘아역 스타’ 출신인 김환희와 남다름은 ‘정변’(뭇 알아볼 만큼 잘 자랐다는 의미의 신조어)의 상징으로 꼽힌다.

2016년 영화 ‘곡성’에서 귀신 들린 연기를 펼쳐 스타덤에 오른 김환희는 최근 MBC ‘목표가 생겼다’의 주인공으로 출연 중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들을 향해 소소하게 복수해나가는 19세 소녀이다. 확 달라진 성숙한 외모가 특히 화제다.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KBS 2TV ‘꽃보다 남자’의 김현중 아역으로 유명한 남다름도 최근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를 통해 시청자를 만났다. 특별출연으로 분량은 짧았지만, 한층 뚜렷해진 이목구비로 시선을 잡아끌었다. 40여편의 드라마를 거쳐 2019년 JTBC ‘아름다운 세상’으로 처음 주연을 맡았고, 올해 카카오 TV로 공개하는 드라마 ‘우수무당 가두심’의 주역으로 김새론과 판타지 로맨스를 펼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국내 공연기획사 사단법인화 추진

코로나 위기속 대중음악 공연산업 활성화 논의

국내 대표적인 대중음악 공연기획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발걸음에 나섰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레이블을 지닌 하이브를 비롯해 SM엔터테인먼트 계열 드림메이커, 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회사를 포함한 50여개 공연기획사들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를 발족한 데 이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음공협의 집행부로 활동 중인 고기호 인베스트먼트 드 이사는 25일 “사단법인 추진을 통해 위기에 놓인 대중음악 공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회원 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추진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프라인 공연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중음악산업의 피해 규모는 184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고 이사는 “현재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00인 이하 공연만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면서 뮤지컬이나 클래식 등 다른 음악공연업계보다 비교적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받는 상황에 대한 시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공협은 국내 대표적인 기획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면서 대중음악 공연업계는 물론 가요계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일 소통창구로서 기능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윤여수 기자

연예뉴스 HOT 5

BTS ‘버터’ 뮤비 공개 4일만에 2억뷰 돌파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21일 내놓은 신곡 ‘버터(Butter)’ 뮤직비디오가 공개 4일 만에 2억 조회수를 돌파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1일 오후 1시 공개한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 25일 오후 2시25분 2억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개 이후 ‘4일 1시간’만으로, ‘4일 12시간’ 만에 2억뷰를 돌파한 ‘다이너마이트’보다 무려 11시간 빨랐다. ‘버터’는 공개 24시간 만에 1억820만건으로 유튜브 뮤직비디오 24시간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엔하이픈, 데뷔 6개월만에 ‘빌보드200’ 18위



엔하이픈

그들 엔하이픈(ENHYPEN)이 데뷔 6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8위로 진입했다. 이들은 25일(한국시간) ‘보더:카니발(BORDER:CAR NIVAL)’로 ‘빌보드 200’ 최신 차트(29일자)에서 18위를 차지했다. 4월26일 두 번째 미니앨범 ‘보더:카니발’을 선보이며 데뷔 6개월 만에 빌보드에 입성했다. 또 빌보드 ‘월드 앨범’(9위)을 비롯해 타이틀곡 ‘드렁크 데이즈(Drunk-Dazed)’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3위에도 올랐다.

이세영 ‘나만 몰랐던 이야기 2’에 목소리 기부



이세영

연기자 이세영이 목소리 기부에 나섰다. 이세영은 밀알복지재단이 제작하는 장애인식 개선 오디오북 ‘나만 몰랐던 이야기 2’를 낭독하며 재능 기부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2’는 밀알복지재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수상작을 편한 10분 분량의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세영은 5개 에피소드 중 ‘우리 집엔 DJ가 산다’와 ‘우산지팡이’를 읽었다. 이세영은 2015년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공포 명작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가 온다

12년 만에 시리즈 신작 6월 개봉 예정
컨저링 3편 ‘악마가 시켰다’ 내달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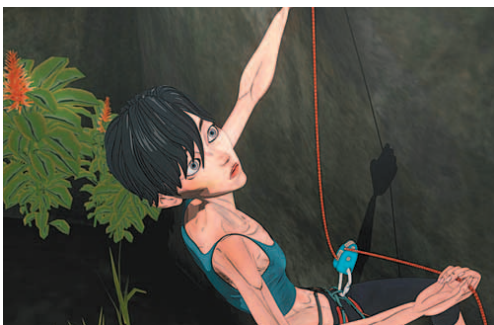
서늘한 공포의 기운을 담아낸 영화가 잇따라 관객을 만난다. 여름시즌, 공포영화의 공습이다. 특히 대표적인 공포영화 시리즈의 신작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야기로 관객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기세다.

한국 공포영화의 ‘명품’으로 꼽히는 ‘여고괴담’ 시리즈의 신작이 6월 개봉한다. 김서형과 김현수가 주연하는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모교’(모교)이다. 2009년 ‘여고괴담5’ 이후 12년 만의 시리즈 신작이다. 기억을 잃은 채 모교에 부임



영화 ‘여고괴담 6’

한 교감과 ‘문제아’로 낙인찍힌 학생이 충격적인 비밀을 따라가는 이야기다. ‘여고괴담’ 시리즈는 1998년 1편 이후 여고라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며 김규리, 김옥빈, 송지효, 오연서 등 술한 연기자를



애니메이션 ‘클라이밍’

배출했다. ‘모교’는 최근 별세한 제작사 씨네2000 이준연 대표의 유작이기도 하다. 프로듀서로 이 대표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은 이 미영 감독이 연출했다. 2013년 1편과 2016년 2편으로 200만 안

팍의 관객을 모으며 사랑받은 ‘컨저링’도 3편 ‘악마가 시켰다’를 6월3일 공개한다. 살인사건에 얽힌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미스터리와 공포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로 관객에게 다가선다.

여기에 코미디와 공포 장르를 뒤섞어 독특한 개성을 발하는 작품도 찾아온다. 6월 3일 선보이는 ‘썰’과 걸그룹 라붐의 솔비를 내세워 여름 개봉을 확정한 ‘나만 보이니’이다. ‘시실리 2km’와 ‘달콤, 살벌한 연인’ 등 코믹 공포물의 계보를 잇는다.

애니메이션도 있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제작한 ‘클라이밍’으로,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장편경쟁 부문에 초청된 수작으로 꼽힌다. 6월16일 선보이는 작품은 세계클라이밍대회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또 다른 자신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공포의 이야기를 그린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SG워너비 역주행 효과...보컬 그룹 잇따른 ‘완전체’ 재결성

빅마마·2AM 완전체로 의기투합

2000년대를 풍미한 보컬그룹 SG워너비의 차트 역주행 돌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시대 감성을 자극한 또 다른 그룹들도 잇따라 돌아온다.

빅마마와 2AM이 오랜만에 ‘완전체’로 팬들 앞에 선다. 이들은 데뷔 이후 뛰어난 가장력으로 두터운 팬덤을 쌓았지만 저마다 다른 이유로 활동을 멈췄다. 하지만 최근 가요계에 불어 닥친 복고와 리메이크 열풍 속에 다시 의기투합하게 됐다.

여섯 보컬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빅마마는 2012년 디지털 싱글 ‘서랍장리’ 이

후 9년 만에 뭉쳐 6월 신곡을 발표한다. 신연아·이지영·이영현·박민혜로 구성된 4인조 빅마마는 2003년 ‘브레이크 어웨이’(Break Away)로 데뷔해 뛰어난 가장력과 하모니를 내세워 사랑받으며 ‘체념’, ‘거부’, ‘혼잣말’, ‘여자’, ‘안부’ 많은 히트곡을 내놓았다.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MSG워너비’ 프로젝트 경연곡으로 ‘체념’이 선정되면서 이들이 한창 활동하던 당시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댄스그룹 2PM이 재결합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들과 함께 2008년 데뷔한 보컬그룹 2AM도 7년 만에 돌아온다. 조

권·이창민·임슬옹·정진운으로 이뤄진 이들은 각기 소속사가 다르지만 최근 재결성의지를 모아 올해 가을 새 앨범을 발표하기로 했다. 새 앨범은 2014년 정규 3집 ‘렛츠 토크’ 이후 7년 만이다. 이들은 ‘이 노래’, ‘죽어도 못 보내’, ‘전할 받지 않는 너에게’, ‘너도 나처럼’ 등 발라드곡으로 사랑받았다.

빅마마와 2AM 등이 무대에 복귀하고 현재 화제성 1위인 MBC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그룹 MSG워너비까지 가세하면서 보컬그룹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는 분위기다. ‘여름=댄스’라는 가요계의 히트 공식을 과감히 깨고 미디엄템포의 발



빅마마



2AM

라드로 각종 차트를 물들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